

첫 도움... 펄펄 난 박지성 왜 뺏겨야?

리그컵 3R 레딩과 홈경기 QPR 공·수 조율 맹활약

후반 교체되자 수비 흔들 연속골 허용 2-3 역전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퀸스파크레인저스(QPR)의 '캡틴' 박지성(31)이 올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박지성은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로프트스로드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캐피탈원컵(리그컵) 3라운드, 레딩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14분 페널티 지역 좌측의 데이비드 호이트에게 패스를 연결해 선제골을 도왔다.
 지난 8월 QPR의 주장으로 이번 시즌 출발을 알린 지 약 한 달이 지나고서 터진 첫 공격포인트다.

박지성은 후반 22분까지 총 67분을 뛰고 바비 자모라와 교체됐다.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해 중앙과 측면에서 위치를 바꿔가며 공수를 오간 박지성은 여러 차례 적극적인 침투를 시도하면서 반칙을 유도해냈다. 기회가 왔을 때 슈팅을 날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날 박지성의 활약에도 QPR은 후반에 연속골을 허용해 2-3으로 역전패했다.
 QPR은 박지성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데이비드 호일렛, 제이미 마키, 지브릴 시세 등을 전방

에 배치해 공격을 주도했다.
 선제골을 얻어낸 것도 QPR이었다.
 그러나 QPR은 선제골을 터뜨린 지 2분 만인 전반 16분 레딩의 카스파스 고르크스에게 동점골을 얻어맞았다.
 박지성이 교체돼 나간 뒤인 후반 26분, 지브릴 시세가 대표같은 중거리슛을 성공시켜 QPR이 다시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QPR은 후반 31분 레딩의 니키 쇼레이에게 동점골, 후반 36분 파벨 보그랴나크에게 역전 결승골까지 허용해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아스널은 3부리그 팀 코번트리시티를 상대로 캐피탈원컵 3라운드 홈경기에서 6-1 대승을 거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뉴캐슬을 2-1로 꺾었고 리버풀은 웨스트브로미치를 2-1로 꺾었다. 토트넘은 칼라일 유나이티드를 3-0으로 제압했다. /연합뉴스



“널 위해 준비했어 145억원”

EPL 리버풀, 손흥민 영입 나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하는 손흥민(20·함부르크SV)이 유럽 명문 클럽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영국의 축구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인 '코트오프사이드'는 27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이 800만 파운드(145억원)에 손흥민의 영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독일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은 손흥민은 지난 16일 2012-2013 분데스리가 3라운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시즌 1호 골을 신고한 데 이어 22일 도르트문트전에서는 2골을 몰아넣으면서 팀의 새 해결사로 우뚝 섰다.
 '코트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을 "측면 공격과 스트라이커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이번 시즌 확실히 '베스트 일레븐'에 자리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활약상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리버풀의 공격력 강화를 노리는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한다면서, 유럽의 여러 명문 클럽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득점 행진으로 함부르크를 시즌 초반 3연패에서 구해내는 등 팀에서 입지를 굳히면서 다음 달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 원정에 나설 명단에 포함됐고, 독일을 벗어난 유럽 무대 전체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코트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옮기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리그 15위에 머문 함부르크가 올 시즌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손흥민

‘어울림’ 아시아시리즈 슬로건 확정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월8일부터 나흘간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리즈 2012의 슬로건을 '어울림'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대만·호주가 야구로 하나 돼 아시아야구의 발전과 올림픽 정식 종목 부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울림'은 각 참가국의 같은 뜻을 지닌 단어와 함께 표기된다. /연합뉴스

외국인 야구팬 위한 KIA 추석맞이 행사

29일 광주구장 입장권 할인 등 서비스 다채

외국인 야구팬들을 위한 '추석맞이' 행사가 열린다.
 KIA 타이거즈가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타이거즈 팬들을 위해 29일 광주 SK전에 '추석맞이 외국인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팬들에게 한국 문화 및 야구문화를 소개하고 추석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KIA 선수들의 사인회가 열리고,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구단 상품을 10% 할인 판매한다. 또 외국인 관람객(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은 20% 할인된 가격에 1·3루 지정석, 외야석을 현장 구매할 수 있다.
 이날 경기 개시 및 라인업 소개도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되며 각각 언어로 KIA 타이거즈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라인업 소개시에는 녹음된 외국인 투수 앤서니의 음성이 경기장에 울리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맥주 빨리 마시기와 추석과 한국문화 및 타이거즈 관련 퀴즈쇼, 댄스권 선발대회, 세계에서 온 사랑의 전광판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한편 이날 시구는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재학중인 우간다 출신의 보사(Bbosa)씨가 할 계획이다.
 보사는 학교 등교시 타이거즈 점퍼를 입고 다닐 정도로 타이거즈 열렬팬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담배연기 없는 대회”

CJ인비테이셔널 운영 약속... 지난해 '전화 소음 없는 대회' 성과

최경주(42·SK텔레콤)가 자신의 이름이 걸린 CJ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총상금 75만달러·우승상금 11만8,875달러)를 담배연기 없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경주는 27일 경기도 여주 해슬리 나인

브릿지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4일 개막하는 대회를 품격있는 골프대회로 만들기 위해 담배연기, 담배꽂초 없는 대회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도 하루에 담배 세갑을 피우다 금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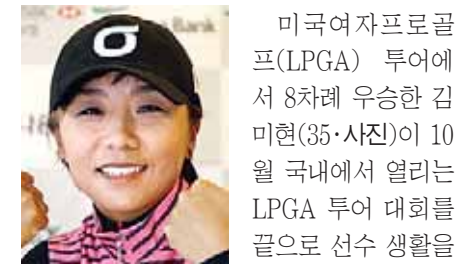
지 12년이 넘었다는 최경주는 "2003년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했다가 코스에 담배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데 놀랐다"며 "우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최경주는 "물론 강요는 아니며 금연 문화를 자발적으로 유도해 '이 대회는 뭔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를 찾는 갤러리들은 골프장 입장 때 이동전화와 담배, 라이터를 맡기면 기념품을 받는다.
 흡연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CJ인비테이셔널은 작년에는 '이동전화 소음없는 대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렸다.
 한편 10월4일부터 나흘간 해슬리 나인브릿지 골프장에서 열리는 올해 대회는 디펜딩 챔피언 최경주를 비롯해 벤 커티스(미국), 노승열(21·타이틀리스트) 등 120명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호랑이 뒷덜미를 잡은 사나이 미국의 더스틴 존슨(왼쪽)이 27일 미국 시카고 메디나 골프장에서 진행된 라이더컵 연습 라운딩에서 타이거 우즈의 티셔츠 깃을 정리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망공’ 김미현 은퇴

LPGA 8승... 10월 마지막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8차례 우승한 김미현(35·사진)이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접는다.
 10월19일부터 사흘간 인천 스키야72 골프장에서 진행되는 LPGA 투어 하나-외환 챔피언십의 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김미현이 이 대회를 은퇴 경기로 삼겠다는 뜻을 알리며 초청 선수로 출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999년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김미현은 그해 스테이트팜 레일클래스와 벅시킹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07년 썬그룹 챔피언십까지 모두 8차례 투어 대회를 제패했다. 박세리(35·KDB금융그룹), 박지은(33·은퇴)과 함께 LPGA 투어 진출 1세대로 활약한 김미현은 155cm의 작은 키에도 아이언샷 버금가는 정확도를 자랑하는 '우드 샷'과 정교한 쇼트 게임을 앞세워 투어에서 통산 862만 달러(약 96억5000만원)의 상금을 벌었다. /연합뉴스